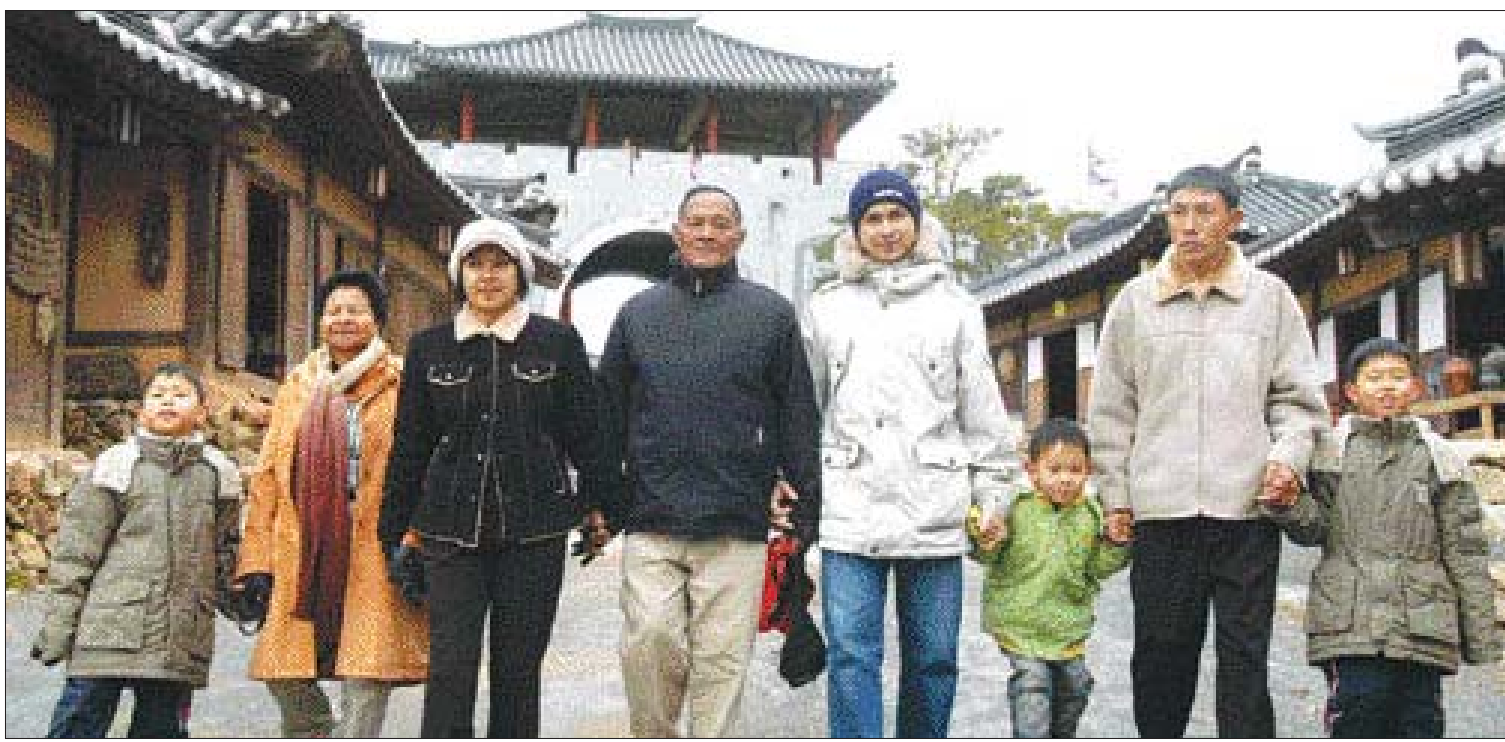


태국출신 온누리안 수파하칸씨의 가족 상봉기



태국 출신 이주여성 수파하칸(왼쪽에서 3번째)씨가 4일, 지역민리 태국에서 찾아 온 친정부모들과 함께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를 둘러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나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엄마 아빠가 한국에... 꿈만 같아요”

“한국에서 엄마, 아빠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4일, 10년 만에 만난 친정부모와 함께 진눈깨비를 맞으며 나주 삼한지 테마파크를 둘러보는 수파하칸(38)씨는 때론 추위로 느끼지 못하는 듯 마냥 행복한 표정이었다. 지난 3일 나주에 도착한 아버지 솜폰하칸(65)씨와 어머니 아룬하칸(62)씨도 외국에 시집보낸 딸을 다시 만났다는 기쁨과, 요즘 태국에서 인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TV프로그램 ‘주몽’의 촬영현장을 찾았다는 흥분이 겹쳐 얼굴에서 웃음이 가시지 않았다.

수파하칸씨의 친정부모가 이번엔 한국을 방문한 것은 동남아시아 여성 결혼이민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행자부 ‘부모 초청’ 6명 전남 방문

“잘 살고 있는 딸 보니 마음 놓여요”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실시하고 있는 ‘부모 초청행사’ 프로그램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베트남·필리핀·태국에서 47쌍의 친정부모가 초청됐으며,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 그리고 순천에서 거주하는 이주여성의 부모 6명이 포함됐다.

지난 97년 2월 전문선(42·회사원)씨와 결혼한 이후 나주노인요양원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수파하칸씨는 부모님에게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서야 마음 한구석에 놓여있던 짐을 덜었다. 외국인과의 결혼을 극구 만류했

던 부모님이 한국에서 자신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안심이 된다’며 웃음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동안 훌쩍 자라버린 쌍둥이 아들 완근·완기(9·초등 2년) 그리고 6살짜리 완우도 활육의 정을 느낀 듯, 태어나 처음 만난 할아버지·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처음 시집왔을 때는 한국말도 못하고 김치도 못 먹어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고 결혼 당시의 어려움을 돌아본 수파하칸씨는 “이제는 아이들도 많이

크고, 직장에도 다니며 한국사람이 다됐다”고 웃었다. 사위 전씨도 “결혼 이후 처가부모님을 처음 뵈려니 기쁘고도 죄송한 마음이 든다”며 “사랑하는 아내를 낳아준 장인·장모께 효도하는 심정으로 잘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태국에서 농사를 짓는 어머니 아룬하칸씨는 “처음엔 딸이 외국인과 결혼한다니 너무나 걱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사위·손자들과 함께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기뻐했다.

차가운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주고, 아버지의 옷깃을 여며주는 그녀의 손길에는 천리타향 태국에 떨어져 사는 괴로움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배어있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인터넷 대출빚 고민 대학생 투신 자살

지난 3일 오후 7시17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S 아파트 주차장에 광주 J대 박모(23·1년 휴학)씨가 숨져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 9월께 인터넷 대부업체인 W사에서 현금 200만원(연 이율 48.96%)을 빌려쓰고 최근 번째 독촉을 받아왔으며, 이 사실을 부모에게 들켜 꾸지람을 들은 뒤 지난 1일 집

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죄송해요. 한 번도 잡혀드리지 못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 너무 힘들어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아버지(50)에게 보내고, 이 아파트 16층 복도 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미루어 박씨가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폭력시위 민노총 간부 5명 영장

전남지방경찰청은 4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정모(34)씨 등 5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달 11일 불법 시위로 금지된 ‘제1차 범국민 행동의 날’ 서울집회 참석을 위해 상경하던 중 서해안고속도로 영광요금소로 진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10명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복어철 ‘독’ 조심

진도 50대 말린 복어 먹고 숨져

지난 3일 오후 5시29분께 진도군 임회면 고정리 서향항에서 목포선적 연안자망어선 9.77t급 ‘8 대승호’(선장 이모·59) 선원 박모(59·목포시 산정동)씨가 말린 복어를 먹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박씨는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중 복어를 먹고 마비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복어 독 얼마나 위험하나?

길이 30cm 자주복 성인 33명 치사량

복어는 ‘테트로도톡신’이라 불리는 독을 갖고있다. 복어의 난소와 간장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치사량이 0.5mg~2mg에 불과한 맹독으로 그 위력은 청산가리의 10배가 넘는다. 학계에서는 몸길이 30cm인 자지복(자주복)에서 나오는 독은

성인 33명을 죽일 수 있다고 본다. 졸복이나 까칠복 등은 쓸개에도 독이 있고, 검복과 국매리복 등은 겉질 층에도 독샘이 있기 때문에 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 독에 중독되면 처음에는 두통이나 현기증세를 보이며 입술과 혀끝 등이 마비된다. 심하면 구토가 나고 말초·중추 신경에 영향을 주어 전신이 마비돼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된다.

석면 피해 국내 첫 배상 판결

법원 “1억3천만원 지급”

광주·전남 1건 계류 중

대구지법 민사 52단독 김세종 판사는 4일 석면제조 회사에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돼 암의 일종인 악성 중피종으로 숨진 원모(여·사망 당시 46세)씨 유족이 부산 지역 석면원단 제조업체인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모에게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석면 관련 회사의 안전의무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한 국내 첫 판결이어서 향후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석면관련 전전화사로서 석면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근로자들에게 석면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과 보호마스크, 장갑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석면먼지나 가루가 완전히 환기될 수 있는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 석면 피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는 1건이다. 배관

공이었던 기씨는 10여 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공사현장에서 석면 단열재를 배관에 감싸는 일 등을 하며 석면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저질 돼지고기 군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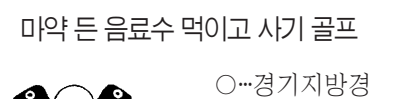
나주경찰, 2명 입건

나주경찰은 4일 저질 돼지고기를 군부대에 납품한 나주 축산물공판장 군남 담당 김모(45) 과장 등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과장 등은 지난 8월13일부터 29일까지 전남지역 B 폐돈 납품 업체에서 소시지 가공용 저질 돼지고기 3t여를 구입한 뒤 이를 장성 상무대 등 군부대에 납품해 1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군부대와 납품 계약을 맺은 장성 축협외의 돼지고기 가공을 위탁받아 농가에서 정상 돼지고기를 들여온 뒤 부분육으로 잘라내는 과정에서 불량미 부족해져자 부족분을 폐돈 업체에서 구입한 저질 돼지고기로 섞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최승환기자 srchoi@

나원침 (7375) 김중두



마약 든 음료수 먹고 사기 골프 ○경기도지방경찰청은 4일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수억 원을 챙긴 임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김모(42)씨 등 2명을 수배.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용인 도 골프장에서 박모(46·요식업)씨에게 한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신경안정제를 음료수에 몰래 타마시게 한 뒤 1타당 200만원, ‘핸디치기’(9홀 기준 자신의 핸디 이내에 들어오면 돈을 잃지 않는 방법) 2천만원을 병행하는 사기골프를 쳐 3억4천여만원을 챙겼다는 것.

○임씨 등은 골프연습장에서 박씨 등에게 접근, “폼이 좋다. 부킹이 되면 함께 하자”고 한 뒤, 초반 라운딩에서 돈을 잃어준다 판돈을 높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도박판 타짜들이 상당수 골프를 익혀 사기골프로 전향하고 있다”고 설명.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코오동세계일주' (Koo-dong World One Day)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sections for '무자녀 새해 해맞이 여행' and '무상공방 송파'.